



함께 견뎌낸 IMF

무인년 한 해는 우리 학회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학회장의 무거운 짐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 전무이사 윤진산 교수를 비롯한 모든 운영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계의 협력,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지난 한 해의 살림을 별 탈 없이 꾸려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원 여러분의 학술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환율 상승 및 연구비 감소 등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춘계 및 추계 총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수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으며,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수도 증가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학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은 물론 비회원이라 할지라도 학회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서로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영문지의 발간 회수를 5회로 늘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오랜 숙원인 영문지 및 국문지의 SCI 등재를 이루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우리 학회지가 SCI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전 회원이 힘을 합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성용길 회장께서도 이미 SCI 등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SCI 등재는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본 학회가 꾸준히 실시해오던 각종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부득이 많이 축소하여 「고분자 아카데미」와 「고분자 기기분석 세미나」만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학회에서도 학회 운영에 관한 많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하여 짧은 시일 안에 다 만족스러운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학회발전연구 위원회」를 통하여 좋은 결실이 얻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본인을 도와 수고해 주신 전무이사 윤진산 교수님과 모든 운영이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회원님들께 누가 되는 일이 있었다면 이는 모두 본인의 부족한 경륜과 미숙함 때문이었으니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려는 시점에 서서 금년 한 해 동안 성용길 신임 회장님과 김낙중 전무이사의 건투를 빌며, 우리 한국고분자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9년 1월 1일

전임회장 이 후 성